

꿈을 예사롭게 여기지 말아라. 꿈은 계시다

본 문 창세기 37장 6-7절, 9절

할렐루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진실한 몸과 마음을 드리며 예배로 영광 돌리러 온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6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은 ‘**꿈을 예사롭게 여기지 말아라. 꿈은 계시다.**’라는 주제로 <꿈>에 대해 말씀해 주겠습니다.

먼저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이어서 꿈을 꾸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꿈 이야기>를 해 주면서 ‘성자의 계시’는 어떻게 오는지 말씀해 주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여 성자가 주시는 모든 계시들을 예사로 여기지 않도록 ‘생각의 축복, 혼의 축복, 감동의 축복’을 받고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꿈>을 통해 여러 가지를 계시하시며 ‘행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꼭 알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환난’이 일어날 것을 보여 주며 피하게 하시고, ‘땅의 사망자’가 태어남을 알려 주기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셨습니다.

-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은 동방의 세 박사들에게 <꿈>으로 계시하여 헤롯 왕을 만나지 못하게 하시고, ‘메시아의 탄생’을 은밀히 숨기셨습니다.

-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도 <꿈>으로 계시하여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 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겠습니다.

* <꿈>은 ‘꿈 영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꿈 영계>는 ‘혼적 차원의 영계’입니다.

<꿈>에서 보는 존재는 ‘혼체’입니다.

‘혼’으로 <천국>까지 볼 수 있고, <천국>까지 가기도 합니다.

* <꿈>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꾸겨 됩니다.

첫째, 성자는 <꿈>을 통해 ‘합당한 것들’이나 ‘할 일’을, 영상 보여 주듯 보여 주며 깨닫게 하십니다.

둘째, 성자는 <꿈>에 ‘실제 영의 세계’를 보여 주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셋째, 뇌 속에서 생각한 것들이

영계에서 현상이 되면서 꿈을 꾸기도 합니다.

* <육신>도 어떤 것을 볼 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봅니다.

첫째, 실제로 어떤 곳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깨닫기도 합니다.

둘째, 한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곳에 갔던 기억을 떠올리며 ‘생각’만 해도

그 현상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그곳을 기억하여 보기도 합니다.

셋째, ‘화면’이나 ‘그림’을 통해

어떤 지역을 보기도 합니다.

* 이와 같이 <꿈>에서도 그러합니다.

첫째, ‘생각’으로만 보기도 합니다.

둘째, ‘혼’이 실제로 다니며 보기도 합니다.

셋째, 상징적으로 꾸민 현상을 보기도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꿈>은 ‘혼적 차원의 영계’라고 했지요?

<꿈>에서 보는 존재는 ‘혼체’라고 했습니다.

성자는 <꿈>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꿈>에서 ‘혼’이 보는 것만 ‘계시’가 아닙니다.

<낮>에 ‘육신’ 이 보고 깨닫는 것도 ‘계시’ 입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꿈>에 ‘혼’ 을 통해 계시하기도 하시고, <낮>에 ‘육신’ 을 통해 계시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꿈을 못 꾀다고 계시를 못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꿈을 흐릿하게 꾀다고 계시를 못 받는다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낮에 ‘육신’ 을 통해 깨닫고 계시를 받으면 됩니다. 낮에는 ‘눈’ 으로 보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면서 ‘생각’ 으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특히 ‘사람’ 을 통해서, ‘만물’ 을 통해서 깨닫도록 계시하시니, 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구해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 사람에게에는 <육체>, <마음·정신·생각>, <혼체>, <영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육의 세계>, <생각의 세계>, <혼의 세계>, <영의 세계> 네 가지로 계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육신>은 만지고, 보고, 듣고, 냄새를 맡으면서 계시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정신·생각>은 손으로 만질 때나 안 만질 때나, 눈으로 볼 때나 안 볼 때나, 귀로 들을 때나 안 들을 때나, 냄새를 맡을 때나 안 맡을 때나 ‘생각’ 으로 느껴서 계시를 받습니다.

세 번째로 <혼>이 영계에서 보고 느낀 것을 <자기 뇌>에 전달하는데, 혼이 영계에서 보고 느낀 것이 ‘생각’ 나거나 ‘영음’ 이 들리면서

제시를 받습니다.

네 번째로 <영>이 <자기 혼>에게 영계의 것을 전달하면, 혼이 그것을 느낍니다. <혼>이 그것을 다시 <자기 육>에게 전달하여 ‘생각’ 하게 하고 ‘영음’ 이 들리게 하면서 깨닫게 합니다.

이와 같이 ‘제시’ 는 동서남북 네 가지 문으로 받습니다.

<육의 문>, <마음·정신·생각의 문>, <혼의 문>, <영의 문>입니다.

* 성자는 그때그때 합당한 대로 보여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제시’ 를 전달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이 흐릿하거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성자가 제시하셔도 모릅니다. 자기가 준비한 만큼 제시가 옵니다.

* <혼의 세계의 것>은 ‘육신의 눈’ 으로는 못 봅니다. ‘혼’ 으로 봐야 됩니다.

* 깊이 기도하고, 혼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을 또렷하게 하면서 신령해야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

육으로 살기에 육으로 보이는 <육의 세계>가 존재하듯이, 혼과 영으로 살기에 육으로는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보이는 <육의 세계>, 육으로 안 보이는 <영의 세계>입니다.

〈육의 세계〉는 ‘지구 세상’ 하나뿐이지만, 〈영의 세계〉는 하나가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크게 나누면 〈지상 선 영계〉, 〈낙원 영계〉, 〈천국〉, 그리고 〈지옥 영계〉, 〈무저갱 흑암 영계〉, 〈지상 악 영계〉, 〈무저갱 흑암 영계〉, 〈지옥 영계〉가 있고, 각 영계마다 더 세분화되어 수백, 수천 군데로 쪼개져 있습니다. <끝>

이 세상에는 ‘세계 각 나라’가 있습니다. 각 나라들을 직접 가 보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어서 알게 되고, 책으로 보면서 알게 되고, 실력이 있어서 세계 각 나라를 돌아다니며 직접 보고 알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혼의 세계, 영의 세계〉도 그러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어 배워서 알게 되고, 혼과 영에 대해 배우고 자기 혼과 영을 개발하여 직접 영계를 돌아다니면서 배우고 알기도 합니다.

〈혼의 세계〉인 〈꿈 세계〉를 ‘하나의 꿈’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육계〉에 있는 것인데 ‘육의 실력’으로 못 찾는 것도 ‘혼’은 〈꿈〉에서 보고 찾습니다. 혼이니 땅속 깊이 묻혀 있는 것도 찾습니다.

‘혼’이 찾은 것을 ‘자기 육’에게 전달하면, 꿈을 깬 후에 ‘육’이 그곳에 가서 그것을 찾기도 합니다. 그것이 수백억짜리이기도 합니다.

‘육신’이 실력이 있어서 세상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실력껏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이 발달된 사람은 ‘육’이 실력이 있어도 ‘육’이 직접 안 가고 ‘혼’을 보내어 세상을 다니면서 찾게 합니다.

‘훈’ 이 찾으면 ‘자기 육’ 에게 전달하여 ‘육’ 이 낮에 직접 가서 찾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쉽습니다.

<전 환>

<꿈>을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꿈>은 성자의 계시입니다.

선생의 작은형이 10대 때 한 꿈을 꾸고 어머니에게 꿈을 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꿈 이야기를 듣고 “네 아버지가 그런 꿈을 꾸 후에는 꼭 산에서 금을 캐다. 네 꿈도 금 캐는 꿈이다.” 했습니다.

작은형은 그 말을 듣고, 친구 고승달과 같이 산에 가서 하루 종일 금이 박힌 노란 돌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오후에 금맥에서 금을 발견하고 아버지에게 돌덩이에 박힌 금 몇 덩이를 캐다 왔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곳에 가서 엄청난 금을 캐했습니다. 그곳은 ‘감람산 양합판’ 입니다.

이같이 꿈에 봤다고 해서 예사로 여기고, “꿈이네. 그림의 떡이네. 꿈의 떡, 꿈의 진수성찬에 불과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지금부터 실례로 ‘여러 가지 꿈 이야기’ 를 들려주면서, <꿈 계시>에 대해 말씀해 주겠습니다.

<꿈 계시1>

(* 선생이 10대 때 꿈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 별’이 있었습니다. ‘내 별도 있겠지?’ 했는데, 초저녁부터 기다렸는데도 ‘내 별’은 뜨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별은 다 떴는데, ‘내 별’만 없으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애를 태우고 있을 때, 새벽녘에 동쪽에서 마지막으로 ‘별 하나’가 떴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저 별이 네 별이다.” 했습니다. 다시 그 별을 보니, 동쪽 하늘에서 ‘별 하나’가 찬란하고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각자 ‘자기 별’을 가지고 있었기에 남은 사람은 나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히 그 별이 ‘내 별’이었습니다.

그 별은 해같이 찬란하게 떠올랐습니다. 바로 ‘새벽별’이었습니다. 그 별이 떠오르니, 다른 별들은 다 빛을 잃었습니다. ‘내 별’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계속 보고 있으니, ‘내 별’이 지나가는 곳마다 다른 별들은 빛을 잃어 안 보였습니다. <끝>

이 꿈을 꾸고 나서 ‘별 신기한 꿈을 다 꿔네.’ 생각하며, 별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 창세기를 보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별들>로 비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창 22:17).

꿈에 내가 본 별들은 ‘신앙의 자손들’임을 깨달았습니다.

-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니 ‘예수님’을 <새벽별>로 상징하여 말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계 22:16).

고로 ‘그것이 내 사명이구나.’ 깨달았습니다.

후에 섭리역사를 펴면서, 그것은 ‘내 사명’을 뜻하는 것임을 더욱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왔습니다. <해와 달>은 ‘부모’이고, <별들>은 ‘형제들’을 상징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그 꿈대로 요셉은 ‘이집트 총리대신’이 되었고, 아버지와 형제들 모두 요셉에게 찾아와 절을 하면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꿈>은 안 이루어지면, <꿈>에서 끝납니다.

<꿈 계시2>

(* 선생이 10대 때 꿈, 또 다른 꿈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지금의 월명동 <성자 사랑의 집>이 있는 쪽, 그 앞으로 자동차가 다니고 전깃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월명동이 우체부도 안 오는 좁은 골짜기였습니다. ‘동’이라는 이름도 없었고, 그저 ‘골’이라고 불렸습니다.

전깃불도 없어서 촛불을 켜 놓고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성자에게 묻기를 “이 좁은 골짜기에도 자동

차가 들어올 수 있어요? 전깃불이 들어올 수 있어요?”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밀히 꿈으로 앞날을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앞날에 자동차나 들어오고 전깃불이나 들어올 줄 알았을 뿐이지, 수만 명의 청중들이 왔다 갔다 하고, 버스들이 줄을 지어 들어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끝>

<꿈>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보여 주신 <꿈>은 그 꿈대로 되고야 맙니다.

고로 ‘꿈’을 가지고 ‘희망’으로 행해야 됩니다.

<꿈 계시3>

선생이 서울에서 전도하러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는 월명동을 아예 개발하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꿈을 꿔했습니다.

월명동에 운동장이 닦여 있었고, 선생이 그 운동장에서 보통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에게 인생에 대해 물어본다고 하며 ‘인생 면담’을 하러 왔는데, 그 줄이 월명동에서 부산까지 늘어서 있었습니다.

결국 그 꿈대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서 사는 사람들까지 다 월명동에 모여들어 ‘인생 면담’을 받고, ‘시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선생에게 면담을 받기 위해 부산까지 줄이 늘어서 있었던 꿈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꿈 계시4>

월명동 개발을 막 시작했을 때, 범석 목사가 한 꿈을 꿔했습니다. 누가 회골 쪽에서 백마를 타고 풀을 헤치며 초인같이 달려오더랍니다. 신기해서 ‘누구지?’ 하며 쫓아가 보니, ‘선생’ 이었다고 했습니다.

선생이 백마를 타고 오는데 그 길의 풀과 가시나무가 자꾸 걸리는 것을 보고, 깨끗이 길을 닦아야겠다고 깨달았답니다.

성자가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범석 목사는 그 계시를 받고, 월명동 사역을 더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다.

<꿈 계시5>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월명동 개발 초기에 선생이 한 꿈을 꿔했습니다. 월명동 산(山) 사방에서 공작, 타조, 사슴, 양 등 각종 동물들이 숲을 뚫고 월명동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풀, 잡초, 가시나무들이 절어 있어서 동물들이 월명동으로 잘 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선생은 ‘풀도 깎아 주고, 길도 내줘야 되겠다.’ 깨달았습니다.

그 꿈을 꾸 후에 선생은 월명동의 산(山) 전부를 깨끗이 하여 사람이 다니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꿈>으로 성자가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꿈에서 본 동물들은 ‘공작 같은 사람들, 타조 같은 사람들, 사슴 같은 사람들, 양 같은 사람들’ 을 상징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꿈에서 본 대로 월명동에 꼭 절어 있는 풀과 잡초와 가시나무를 다

쳐내고 깨끗하게 길을 닦았습니다. 광야 같은 곳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공작 같은 사람들, 타조 같은 사람들, 사슴 같은 사람들, 양 같은 사람들이 월명동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월명동>을 이상세계로 만드셨고, 고로 <월명동>은 ‘거룩한 땅’ 이 되었습니다. <끝>

<꿈 계시6>

<꿈>은 다른 사람이 꾀 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태몽’ 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나를 낳을 때 ‘태몽’ 을 꿔셨습니다.

지금의 월명동 <기도 동산> 뒤쪽 전망대에서 ‘큰 뱀’ 이 산을 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뱀이 너무 커서 어머니가 말 타듯 올라타도 양발이 땅에 안 닿았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큰 용’ 이었습니다.

그 ‘큰 용’ 이 뒷동산에서 앞산을 향해 소변을 봤는데, 마치 물대포 같이 물살이 세서 ‘앞산 일부’ 가 무너지는 꿈이었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5>

그 꿈대로 선생은 월명동을 개발하면서 ‘앞산 일부’ 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야심작 돌 조경>을 만들었습니다.

<야심작 돌 조경>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구상해 주시고 보여 주며 계시해 주신 그대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월명동을 <자연성전>으로 만들었습

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더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끝>

<꿈>을 무시하면,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꿈 계시7>

조은 목사의 ‘태몽’입니다.

용 한 마리가 하늘로 확~ 치솟는데, 엄청 힘이 좋더랍니다. 그런데 그 용에게는 ‘머리’가 없더랍니다. 그 용을 어머니 송은복 권사가 두 팔로 확 부둥켜안는 꿈을 꿔다고 했습니다.

그 꿈대로 됐습니다. 머리가 없는 용이니 머리가 있어야 하는데, <성자와 분체>가 ‘조은이의 머리’가 되었고, <조은이>는 ‘성자와 분체의 몸’이 되어 지금 열심히 뛰고 달리고 있습니다. 맞지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꿈 계시8>

선생이 20대에 짝사랑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여러 가지로 도와주며, 성자가 내게 가르쳐 주신 이 시대 복음을 전해 주며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애원했건만, 여자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을 배신한 한 종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 시대 복음을 전해 줘도 싫다고 하며 거부했습니다. 선생은 극히 실망하며 ‘이제는 안 되겠다.’ 하며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날, 성자께서 꿈에 가오리만 한 ‘금붕어 한 마리’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 금붕어는 ‘그 여자’와 ‘그 여자가 다녔던 종파’를 <상징>

으로 보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꿈에 보니, 술 먹는 자들이 그 금붕어를 잡아서 매운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대로 ‘그 여자’는 사망으로 가고 말았고, ‘그 종파’도 사망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꿈 계시9>

20대 초반, 선생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했을 때 한 작전 중 새벽에 꿈을 꿔왔습니다.

꿈에 긴 머리를 앞으로 내려 얼굴을 가리고, 손톱을 길게 기르고 흰 소복을 입은 귀신이 머리에서 물을 줄줄 흘리면서 나타나, 시퍼런 눈을 부릅뜨고 긴 손톱으로 나를 찌르려 쫓아다녔습니다. 계속 도망갔으나, 그 물귀신이 나를 덮쳐 죽기 직전에 잠에서 깰았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6>

날이 새고 작전을 하다가 ‘혼바’라는 산에서 적의 수류탄을 발견했습니다. ‘방망이 수류탄’이었습니다.

그 수류탄을 손에 집어 든 순간, 누가 몽둥이로 내 뒷목을 힘껏 내려쳤습니다. 그때 내 손에 들고 있던 수류탄이 10미터 앞으로 날아가 바위 틈새로 떨어졌고, 그 순간 바위 속에서 수류탄이 ‘팡’ 하고 터졌습니다.

베트남의 혼바 산 지대는 바위들로 되어 있는데, 수류탄이 그 작은 바위 틈새로 들어갈 확률은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수류탄이 들어가서 터진 것입니다.

만일 바위 틈새로 수류탄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선생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류탄의 ‘살상 범위’가 사방 20m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 수류탄은 들면 4초 만에 터지도록 적이 설치해 놓았기에 내가 수류탄을 손에 집어 든 순간, 나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영의 몽둥이’로 내 목을 내려쳐 충격을 주어 수류탄을 던져 버리게 하심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만일 그때 영감으로 “피해라.” 했으면, “왜요?” 하고 한 마디 묻는 시간에 수류탄이 터져 죽었을 것입니다. <끝>

나와 5m 떨어진 곳에 중대원 60~70명 정도가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수류탄 파편에 맞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생명’ 뿐만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때 새벽에 꾸는 꿈이 생각났습니다. 귀신이 나를 덮쳐 죽기 직전에 있었듯, 수류탄이 나를 덮쳐 죽을 뻔한 사건을 미리 보여 주신 ‘꿈의 계시’였습니다.

어떤 사고가 있기 전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꼭 작고 크게 계시를 보이며 깨닫게 해 주십니다. <직감·예감·영감>으로, 혹은 <감동>으로, 혹은 <꿈>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두고 보여 주신 <계시>가 맞으니, 작든지 크든지 예사로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꿈 계시10>

한번은 한 생명이 신앙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자의 뜻이 있어 다시 돌아올 것이면, 꿈에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성자는 그 생명을 꿈에

보여 주셨습니다.

꿈을 통해 성자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생명이 다시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해 주고, 관리자를 보내어 계속 관리해 주었습니다. 결국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환>

* 선생이 꿔던 <최고의 꿈>은 ‘성자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꿈속에 나타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꿈’입니다.

또 선생이 <최고의 꿈>을 풀었으니, 곧 ‘전능하신 성자가 예수님을 쓰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100% 믿고 사랑하며 사니,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는 예수님을 쓰고 내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 선생은 수천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개인>에게 해당되고, <섭리사>에 해당되고, <민족과 세계>에 해당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꿈>을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꿈>은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이미 여러분에게 <혼의 세계>와 <혼체>에 대해 가르쳐 줬습니다. 고로 성자는 <혼의 세계>인 ‘꿈’으로 계시하시니,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낮에도 육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확실히 생각하고 확실히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혼체>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혼의 세계>를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이에 성자도 ‘꿈’을 통해 확실히 보여 주시며 계시하십니다.

<전환>

* <꿈>에서 본 것을 <생시>에서 찾으면, ‘꿈에 불과한 떡’ 이 아니라 ‘현실의 떡’ 이 되어 실체를 찾게 됩니다.

<꿈>에 ‘혼’ 으로 만났는데, 그 혼의 육을 찾아 전도하기도 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꿈>에 ‘혼’ 으로 어떤 것을 봤는데, 실제로 그 장소에 가서 그것을 찾아 얻기도 합니다.

- 사도 바울도 계시를 받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환상이 보였는데, 마게도냐 지역의 한 사람이 나타나 “우리 지역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청했습니다(행 16:9-10). 이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 을 전하고 ‘교회’ 를 세웠습니다.

그 후에 그 족속들이 복음을 전파하여, 그 지역은 <신교 복음 지역> 이 되었습니다.

- 어떤 사람은 <꿈>에 산삼이 있는 장소를 보고, 생시에 그 장소에 가서 100년 묵은 산삼 여덟 뿌리를 캐어 수억 원을 벌기도 했습니다.

- 어떤 사람은 자기 엄마가 <꿈>을 꿔는데, 죽음을 예시하는 꿈이었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저수지로 수영을 하러 간다고 하자, 엄마는 <꿈>을 생각하며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예사로 여기고, 기어이 갔다가 저수지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진산에 살았던 선생의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전환>

신령해야 <꿈>을 통해 계시를 받습니다.

자기 혼이 능력이 있어야 꿈에 영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 성자에게 계시를 받고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자는 <꿈>으로만 계시하지 않습니다. <생시>에도 ‘생각’ 나게 하며 계시해 주시고, ‘직감·예감·영감’ 으로도 계시해 주십니다. 또한 ‘감동’ 으로도 계시해 주십니다.

꿈, 생각나는 것, 직감·예감·영감은 ‘성자의 계시’ 이니, 모두 예사로 여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직감 계시>

(조은 신입생 때, 공사장에서 떨어져 죽은 한 사람의 사연
선생이 말하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았냐. 시간 되면 잠깐 말해 줘.)

<감동 계시>

* 어떤 사람의 사연입니다. 아는 사람이 자기에게 돈을 빌려 주면 사업을 해서 3분의 1을 더 빌려 준다면, 수익을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업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서 ‘돈을 줘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감동대로 해야지.’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오기를 “주지 마.”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 예사로 여기고 몇억을 투자했습니다.

투자한 후에 불과 얼마 안 있다가 그 젊은 사업가가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나서 고민하다가 자살한 것이었습니다.

성자가 이를 아시고, 기도했을 때 ‘감동’으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 예사로 여기고 행하다가 100% 손해를 본 것입니다.

* 이외에도 여러분 각자가 겪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 영계에 가도 계시를 잘 못 받습니다. 평소에는 기도하면 성자가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실 때는 ‘하지 마.’ 하시거나, ‘100% 확인하고 해라.’ 하며 <감동>을 주십니다.

또 <꿈>으로도 깨닫게 해 주시니, 성자께 <꿈>으로 계시를 받았으면 꼭 그 꿈대로 실천해야 ‘해(害)’가 안 되고 ‘유익’입니다.

<전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꿈, 직감·예감·영감, 감동>으로 계시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며 계시해 주시고, <육>이 보고 들을 때 깨닫게 하며 계시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예사로 보지 말고, 생활 가운데 ‘성자의 계시’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혼과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깨닫게 되고, 자기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도 깨닫게 되고, 자기가 할 일도 깨닫게 되고, 전도할 생명도 보이고, 관리하는 생명들의 상태도 보여 합당하게 관리하게 되고, 얻을 것을 얻게 되고, 찾을 것을 찾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됩니다.

‘꿈을 예사로 보지 말아라. 성자의 계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

고 행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 역시, 빨리 휴거되는 데 있어서 꼭 알고 행
해야 될 말씀입니다.

성자의 평강과 사랑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